

# 박형식 “사랑? 우정?... 난사랑”

오는 23일 공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뮤직 로맨스’...김희원 감독·한소희 배우 호홉 맞춰



배우 박형식은 사랑과 우정 중 사랑을 택한다.

23일 공개되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트랙 #1’(극본 안재복, 연출 김희원)은 20년 지기 절친인 두 남녀가 한 집에 머물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뮤직 로맨스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법한 ‘사랑과 우정 사이’를 그렸다.

‘사운드트랙 #1’은 박형식의 로맨스 작품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다. 이에 첫 공개를 앞두고 박형식에게 직접 ‘사운드트랙 #1’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박형식은 ‘사운드트랙 #1’에 대해 “오랜 친구로 지내오던 남녀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움트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짝사랑, 서서히 알게 되는 사랑의 감정을 음악과 함께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원 감독님, 한소희 배우와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 대본도 재미있게 읽어서 선택했다.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출연 계기도 덧붙였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 한선우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이자 은수(한소희)의 오랜 친구다. 한결같이 진실한 청년인데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 한선우의 이런 변하지 않는 진실함이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한 기억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극 중 한선우처럼 사랑과 우정 사이 기로에 놓인다면 박형식은 ‘사랑’을 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사운드트랙 #1’ 정말 재미있게 촬영했다. 김희원 감독님과 한소희 배우, 그리고 박형식의 조합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저 역시 23일에 무척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 ‘극한 상황 서바이벌’ 카카오TV ‘생존남녀’ 론칭



오는 18일 오후 7시 첫 공개

제작진은 “팀원들과 혹은 상대팀과 소통하고 대립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통해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대립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하는 서바이벌이 찾아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생존 전략 서바이벌을 담은 카카오TV 오리지널 ‘생존남녀 : 갈라진 세상’을 오는 18일 오후 7시에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첫 공개일인 18일에는 1~4회가 동시 공개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카카오TV를 통해 2회씩 동시 공개된다.

‘생존남녀 : 갈라진 세상’은 동일하게 주어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성별·성격·직업·취미·라이프스타일 등 각기 다른 10명의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펼쳐내는 생존 전략을 살펴보는 리얼 서바이벌이다. 참가자들은 1억 원의 상금을 걸고 남녀로 팀을 나눠 혹한의 날씨, 한정된 보급품 등 주어진 상황 속에서 10일간의 리얼한 생존 대결을 펼친다.

또한 생존 서바이벌 콘텐츠인만큼,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초대형 야외 부지에 촬영 세트를 마련해 극한의 생존 환경을 구현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최종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라이프스타일 등을 가진 방송인·래퍼·운동선수·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총 10명이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에는 인적이 드문 삭막한 자연 환경에서 갈라진 절조망 사이로 두 채의 정체 모를 건물만이 남아있어 참가자들이 생존 대결을 펼칠 극한의 환경을 짐작하게 한다.

제작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성 있는 10명의 참가자들이 세상과 단절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른 생존 방식을 선보이는지, 열혈 동안 그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며 신선한 콘텐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마을 지키는 도적으로 변신한 ‘김남길’ 넷플릭스 ‘도적:칼의 소리’ 이윤 역 출연



유재명·서현·이현욱 등 출연

이주한 조선인이 각자 다른 목적으로 뒤엉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물이다.

김남길은 일본군 출신이지만 모든 걸 버리고 간도로 떠나 사람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도적 ‘이윤’을 연기한다.

유재명은 의병장 출신으로 간도에 자리잡은 조선인 마을의 지주 ‘최충수’를 맡았다. 서현은 정체를 감추고 조선총독부 첩보국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희선’을, 이현욱은 기회주의적인 일본인 간부 ‘이광일’을, 이호정은 이윤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도로 가는 총잡이 ‘언년’ 역을 맡았다.

‘도적:칼의 소리’는 ‘나쁜 녀석들’ 시리즈, ‘38사기동대’를 함께 만든 한정훈 작가와 황준혁 감독이 또 한 번 손잡은 작품이다.

# 라붐·비아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콘서트 출연

우크라 가수 케이트 소울, 현지서 화상으로 출연



그룹 ‘라붐’과 래퍼 비아이(B.I)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발발한 전쟁 피해자 돕기 콘서트에 참여한다. 대한민국 응원단 레드엔젤이 구세군과 함께 오는 26일 여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온라인 콘서트 ‘위 올 아 윈 스톱 워(WE ALL ARE ONE-STOP WAR)’에 출연한다. 걸그룹 중 군 위문공연 최다 기록을 보유한 ‘군통령’ 라붐은 “우리의 작은 몸짓과 메시지가 평화의 메아리로 전세계에 확산되길 바란다”

다”고 전했다.

B.I 측은 “극한 상황 지구촌 이웃을 위로하는 의미 깊은 공연이어서 무조건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한국구세군에서 우크라이나 구세군을 통해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여성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소울(Kate Soul·28)이 전쟁 참화속에서도 소셜 미디어로 이공연 소식을 접하고, 화상 콘서트로 합류 의사를 전한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중서부 도시 흐멜니츠키에 살고 있다는 소울은 지난 10일 동영상 편지를 통해 “현재 러시아군이 포위한 체르니히우에서 7시간 거리의 곳에 있다. 하루 하루가 생명을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라 26일까지 살아 있다면 화상 공연이라도 꼭 참여해서 노래하고 싶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레드엔젤 박재현 대표는 “콘서트 당일 무사히 그녀의 노래를 듣고 싶다.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 ‘서른, 아홉’ 손예진·전미도·김지현, ‘캐릭터 키워드’는?

차미조 ‘우아한 강다구’·정찬영 ‘뜨거운 얼음’·장주희 ‘오지랖의 밀당’

JTBC 수목 드라마 ‘서른, 아홉’을 집필한 유영아 작가가 세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키워드를 15일 공개했다.

먼저 유 작가는 세 친구 중 가장 잘 나가는 차미조(손예진 분) 캐릭터를 ‘우아한 강다구’라고 이름지었다. 차미조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답게 교양과 품위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리더의 재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한부 정찬영(전미도 분)을 위해 골프 유학을 포기하고 정찬영과 장주희(김지현 분)를 이끌어 친구의 여생을 신나게 보내기로 결심한 것에서 그 성향을 알 수 있다.

정찬영 캐릭터는 거침없는 말투와 분명한 감정 표현 등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타입처럼 느껴지는 인물로 특히 맏고

끓음이 확실해 냉정한 성격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본인 일에는 생각이 많고 주저할 때가 많다.

유 작가는 그런 정찬영을 ‘뜨거운 얼음’이라고 말했다. 차가운 얼음처럼 겉은 세 보이지만 속에는 뜨겁게 용솨음치는 감정들이 응어려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태슬로 장주희의 연애 상황은 친구들의 큰 뉴스거리다. 때마침 장주희의 연애 세포가 차이나타운의 젊은 셰프 박현준(이태환 분)에게 반응하면서 핑크빛 꽃길의 가능성이 우뚝 솟은 상황이다.

하지만 장주희는 박현준과 우정에 가까운 유대감을 쌓고 있다. 일을 마치고 함께 술 한잔을 기울이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을 박현준을 위해 안주는 육포를 준비하는 배



려와 센스를 발휘한다. 하지만 박현준에게 연애 상담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정함과 오지랖의 밀당’이라고 표현해 순진무구한 장주희의 매력을 와닿게 했다.

한편 ‘서른, 아홉’은 후반부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오후 10시30분에 7회가 방송된다. 뉴스

# BTS ‘봄날’, ‘벚꽃엔딩’ 제친 ‘봄 캐럴’

멜론, 지난 5년간 차트 데이터 바탕...‘봄 시즌 대표’ 곡 발표

멜론이 지난 5년간의 차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봄 시즌을 대표하는 곡들을 발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은 봄 시즌을 맞아 지난 5년간 멜론에서 인기있었던 대표적 곡들을 분석하는 한편 각자에게 어울리는 봄 노래를 추천하는 ‘봄날운송’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멜론에 따르면 매년 날씨가 온화해지는 3월엔 멜론차트 톱100에서 제목에 벚꽃이 들어간 곡이 두각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곡으로 2012년에 발매된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과 2014년에 발매된 하이포(HIGH4)와 아이유가 함께 부른 ‘봄 사랑 벚꽃 말고’이다. 두 곡은 매년 봄 시즌이 되면 차트 역주행을 하며 ‘봄 캐럴’ 곡으로 화제를 모았다.

‘벚꽃 엔딩’은 월간 기준 지난 2020년 4월에 60위를 기록한 이후 작년 봄에는 톱 100 진입을 하지 못했다. ‘봄 사랑 벚꽃 말고’도 3~4월 모두 톱100에 들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작년에는 벚꽃이 만개하는 4월에만 톱100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2017~2021년 5년 사이 3~5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월간 톱100에 들었던 봄 스타일의 곡은 방탄소년단 ‘윙스(WINGS) 외전 :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 앨범의 타이틀곡 ‘봄날’이다.

멜론은 “2017년 2월 발매 이후 5년 넘게 줄곧 톱100 자리를 지키고 있는 K팝 대표



스튜디오인 이 곡은 봄 시즌에 최고 순위에 올랐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매년 보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벚꽃 엔딩’을 부른 버스커 버스커의 리더 장범준은 지난 2019년 드라마 OST로 부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샤푸랑이 느껴진거야’는 2020년 4월 4위에 오르며 그해 월간 최고 순위에 올랐고, 작년에도 봄 시즌인 3월 17위에 랭크하며 연중 제일 높은 순위를 보였다.

멜론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봄 노래를 추천해주는 ‘봄날운송’ 이벤트를 15일 낮 12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